

일 전문대학 신입생의 산업체 현장체험프로그램의 효과와 만족도
The Effectiveness and Satisfaction of Industrial Field Experience Program on a College
Freshman

박복남 (의료정보시스템과), 강말순 (진주보건대학 간호과)
Park, Boc Nam (Department of Medical Information System),
Kang, Mal Soon (Departmen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scale industrial field experience program. And industrial field experience program's satisfaction on a college freshmen. **Method:** The subjects were 941 freshmen of a college in J-city area.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SPSS 18.0 program. **Result:** The industrial field experience program was effective in significantly improving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scale. The industry's field experience program's satisfaction mean is 4.02/5.00. The means of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he satisfaction of the education environment are 4.16/5.00 and 4.14/5.00. **Conclusion:** There is a need to develop program of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for the freshman college students, and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factors to improv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scale.

Key words : satisfacti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freshman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진로발달은 진로인식-진로탐색-진로선택-진로준비-진로전문화의 연속선상에 있게 된다(오치선 등, 2000). 학생들은 이러한 진로단계에 따라 순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로지도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지식의 폭이 좁고 자기 자신이 어느 직업에 흥미와 적성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이숙영, 2007).

특히 대학생에게 진로선택은 학생들이 당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복잡한 의사결정의 과정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입학의 과열경쟁 속에서 자신의 적성 및 장래희망을 고려하기 보다는 일단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입학한 학생들이 많기(이현립, 김봉환, 김병숙, 최웅용, 2000) 때문에 진로결정의 시기가 대학생 시기로 유예되어, 대학생들의 자신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이다(강승희, 2010). 대부분의 대학 신입생들은 진로선택에 있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진로결정에 있어서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Omdoff & Herr, 1966). 이들은 전공이나 진로를 경험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으로 진로탐색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게 되어 학업성취와 대학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기에 대학신입생들에 대한 전공 및 진로 탐색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김영경, 2008). 즉, 대학생들의 대학입학 시기부터 직업을 찾고 그 직업에 따른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재학 중의 체계적인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이은진, 2002).

대학생들은 주변의 지인이나 매스미디어 등을 통해 접하는 직업에 한정되어 있고, 일정분야에 편향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또한 돈 잘 벌고 인정받는 몇몇 직업에 대한 환상이 지나치며, 직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실상을 모르는 실정이다. 대학생들의 전공에 맞는 직장현장을 직접 경험한다면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차선미, 2005). 특히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핵심적인 인력양성을 담당하는 전문대학은 일반 대학과는 달리 2~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왔던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대학에서 진로지도는 더욱더 시급성이 요구되며,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교육목표는 전문 기능교육으로서, 이러한 교육목적에 맞는 교육과정은 실제적인 기술습득이 중요하다(유희정, 2004).

산업체 현장체험은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산업체 인사 담당자의 특강을 통해 현장적합성 교육으로 실무능력 함양과 기업에 맞는 인재로의 사전 준비능력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공탐색, 채용현황 숙지 등으로 취업과 경력개발이 기대되고 있다(최성용, 2007). 이는 전문분야 취업을 중요시하는 전문대학의 특성을 살려 2~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공 준비 후 성공적인 취업 도달을 위해 1학년 신입생 시절부터 진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한 자신의 진로방향 설정과 관리를 실시할 경우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또한,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현장체험을 통하여 전공 관련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습득하여 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로에 대한 정보수집과 목표설정, 미래에 대한 계획 등을 실현하기 위한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에 대한 확신감 향상과 더불어 진로결정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조아미, 2001). 산업체 현장체험을 통한 전공분야 진로에 대한 이해수준의 향상은 학교와 전공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통한 신입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진로지도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산업체 현장체험프로그램의 교육주기는 1년, 6개월, 1학기, 방학기간, 한 달, 몇 주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으나, 이숙영(2007)과 차선미(2005)의 연구는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으로 1개월에서 6개월 범위의 연수에 참여하였다. 그 외 대부분의 산업체 현장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는 인턴쉽이나 산학협동교육으로 실시하여 교육기간이 평균 6개월 전후이며, 또한 2학년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조아미, 2001; 한봉기, 2008).

국내 전문대학 1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지도를 실시 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며, 빠른 시간에 진로에 대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산업체현장체험프로그램은 김유리, 이세경(2008)의 연구와 같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우는 찾아볼 수 있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신입생의 진로지도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전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산업체 현장체험프로그램을 1일 동안 적용하여, 효율적인 진로지도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산업체 현장체험프로그램을 적용한 대학신입생의 학교만족, 전공만족, 진로결정효능감,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교만족, 전공만족, 진로결정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을 파악한다.
- 나. 산업체 현장체험프로그램이 대상자의 학교만족, 전공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다. 산업체 현장체험프로그램이 대상자의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라. 산업체 현장체험프로그램이 대상자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마. 대상자의 산업체 현장체험프로그램 만족도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진로결정효능감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즉 개인의 진로관련의사결정에 대한 준비정도(Betz & Luzzo, 1996)로, 본 연구에서는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

결정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CDMSES))의 단축형인 CDMSES-SF를 이학주와 이기학(2000)이 대학생에게 맞게 수정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2.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은 진로미결정과 확고한 진로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성상의 어느 한 지점을 지칭하는 것이다(장기명, 2003). 자신의 전공선택 및 직업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에서 나타나는 진행수준과 장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함의 정도로 본 연구에서는 Osipow 등(1980)이 개발한 진로결정수준 검사 도구를 고향자(2000)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3. 산업체 현장체험프로그램 만족도

만족도는 일정한 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감정(Campbell, 1979)으로 본 연구에서 산업체 현장체험프로그램 만족도는 차선미(2005)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장체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4. 연구의 제한점

가. 산업체현장체험프로그램은 각 학과의 특성에 따라 동일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어려워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나. 모든 신입생에게 산업체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적용하기위하여 모든 대상자는 1인이 1개 업체만을 방문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통일된 체험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없었다.

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현장체험프로그램은 기회의 형평성을 제공하기위해 재학생 전체 944명의 많은 수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장기간의 산업체 현장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어 1일 체험으로 제한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전공업무에 대한 실습경험은 다소 부족할 수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원시실험연구로서 단일군 전후 실험설계이다. 연구대상자에게 산업체현장체험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 일반적 특성, 학교만족, 전공만족, 진로결정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였고, 실험처치 후 학교만족, 전공만족, 진로결정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을 반복측정 하였으며, 산업체현장체험프로그램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A대학에 재학 중인 1학년 신입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총 944명 중 답변이 불성실한 3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941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전체 교육프로그램진행은 2009년 7월 14일에서 9월 2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대상자는 1개 산업체를 1일 동안 방문하였다.

설문지는 산업체체험 출발 전 버스 탑승하여 사전 조사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학교로 돌아와 사후 조사를 자유롭게 작성하였으며, 1차 설문 작성 후 산업체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자에게는 각 학과별로 방문 산업체에서 제공하는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이 적용되었다.

3. 연구도구

가. 학교만족

학교만족은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표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나. 전공만족

전공만족은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 진로결정효능감

진로결정효능감은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CDMSES)의 단축형인 CDMSES-SF를 이학주와 이기학(2000)이 대학생에게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하부영역은 정보수집 5문항, 목표설정 5문항, 진로계획 5문항, 문제해결 5문항, 자기평가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표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은진(2002)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7로 나타났다.

라.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은 Osipow 등(1980)이 개발한 진로결정수준 검사 도구를 고향자(2000)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개인의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확인하고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경험하고 있는 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Likert 5점 척도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부영역은 확신성 2문항, 미결정 1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 1-2는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확신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문항 3-18은 높을수록 진로가 더 미결정 되어있음을 의미하여 이를 역으로 채점하여, 진로결정 수준 척도 범위를 18~7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마. 산업체현장체험프로그램 만족도

산업체현장체험프로그램 만족도는 차선미(2005)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장체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9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표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 연구 절차

가. 산업체현장체험프로그램 과정

1) 각 학과별로 전공에 맞는 우수 산업체를 선정하여 학과교수와 현장 관리자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과 특성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일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2) 산업체현장체험교육 일정을 학과와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3) 산업체현장체험 출발 전 학교 내 집결하여 1차 설문을 작성한다.

4) 산업체현장체험 관련 공지사항을 공지하고 현장으로 출발한다.

5) 산업체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 교육담당자 인솔 하에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6) 산업체현장체험 프로그램 종료 후 귀교하여 2차 설문을 작성 한다.

나. 자료 분석 방법

- 1)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과 표준편차,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학교만족, 전공만족, 진로결정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은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학과에 따른 산업체현장체험프로그램 만족도의 차이는 One way-ANOVA로 분석하였고,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전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산업체현장체험 프로그램이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산업체현장체험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여학생 694명(73.7%), 남학생 247명(26.3%), 총 941명으로, 나이는 평균21.34(±3.42)세였다. 학과는 간호과 315명(33.5%), 임상병리과 88명(9.4%), 치위생과 139명(14.8%), 치기공과 52명(5.5%), 보건행정과 74명(7.9%), 피부미용과 64명(6.8%), 관광계열 88명(9.4%), 의약복지정보계열 121명(12.9%)이었으며, 체험 산업체는 간호과의 경우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을 포함한 5개 병원, 임상병리과, 치위생과 관광계열 등 1개 병원 및 기타 모든 학과별 특성에 맞게 업체를 선정하여 참여 대상자는 1회 방문하여 업체에서 제공하는 현장체험을 실시하였으며, 체험 지역은 서울을 포함한 6개 지역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941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requency(N)/Mean	Percentage(%) /SD
Gender	female	694	73.7
	male	247	26.3
Age		21.34	3.42
Department	nursing	315	33.5
	clinical pathology	88	9.4
	dental hygiene	139	14.8
	dental Tech	52	5.5
	health administration	74	7.9
	hair & beauty	64	6.8
	tourism	88	9.4
	medical informatics	121	12.9
Organ	YP hospital	88	9.4
	P hospital	55	5.8
	SM hospital	20	2.1
	Y hospital	80	8.5
	SAhospital	80	8.5
	BS hospital	80	8.5
	CB hotel	88	9.4
	C hospital	139	14.8
	S & C beauty	64	6.8
	B hospital	19	2.0
	G settlement house	59	5.8
	S settlement house	21	2.2
	P nursery	26	2.8
	W & O implant	52	5.5
CP hospital	74	7.9	
Location	Kyeongsangnam-do	162	17.2
	Pusan	299	31.3
	Seoul	244	25.9
	Kyeonggi-do	80	8.5
	Daegu	21	2.2
	Chennam	139	14.8

2. 대상자의 학교만족과 전공만족

학교와 학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체험 전 학교만족은 평균 3.60(±.74)에서 체험 후 평균3.84(±.7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t=-10.86, p=.000),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체험 전 평균 3.92(±.74)에서 체험 후 4.09(±.7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7.99, p=.000)<Table 2>.

<Table 2> School and Major satisfaction

N=941

Variable	Classification	Mean	SD	Mean Diff (Post-Pre)	t	p
School satisfaction	Pre-test	3.60	.74	.2368	-10.86	.000
	Post-test	3.84	.74			
Major satisfaction	Pre-test	3.92	.74	.1636	-7.99	.000
	Post-test	4.09	.70			

3. 대상자의 진로결정효능감

대상자의 진로결정효능감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진로결정효능감은 체험 전 평균 3.46(±.39)에서 체험 후 3.56(±.4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t=-7.48, p=.000$). 하부영역을 살펴보면 정보수집($t=-8.10, p=.000$), 목표설정($t=-4.71, p=.000$), 진로계획($t=-7.15, p=.000$), 문제해결($t=-2.57, p=.010$), 자기평가($t=-6.65, p=.000$) 5개 영역 모두 체험 전에 비해 체험 후에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Table 3>.

<Table 3>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N=941

Variable	Classification	Mean	SD	Mean Diff (Post-Pre)	t	p
information gathering	Pre-test	3.42	.52	.14	-8.10	.000
	Post-test	3.56	.54			
Setting the goal plans for their future	Pre-test	3.56	.48	.08	-4.71	.000
	Post-test	3.64	.52			
problem-solving	Pre-test	3.49	.54	.13	-7.15	.000
	Post-test	3.62	.55			
self-evaluation	Pre-test	3.29	.48	.05	-2.57	.010
	Post-test	3.34	.55			
Total	Pre-test	3.54	.50	.11	-6.65	.000
	Post-test	3.65	.51			
Total	Pre-test	3.46	.39	.10	-7.48	.000
	Post-test	3.56	.42			

본 연구의 결과 진로결정효능감 정도가 체험 프로그램 실시 후 모두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이는 직장체험이 진로결정효능감을 향상시킨다는 선행연구결과들과도 일치한다(조아미, 2001; 김유리, 이계경, 2008). 전공과 관련된 산업체 현장체험은 그 직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지각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로의사결정이 향상된 것으로 보여진다. 진로결정효능감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신념 또는 유능감으로 진로결정효능감이 높은 학생일 수록 진로의사결정에 대해 좀 더 진보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며 적극적인 것이다. 하부영역에서 정보수집과 진로계획영역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자기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제대로 찾고 치열한 경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직업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조현재, 2010). 즉, 산업체현장체험은 진로발달의 기본적인 과업으로 새로운 환경에 대한 탐색활동을 촉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수준을 넓히고 사회적 유능감을 증진시켜 진로발달을 강화할 수 있는 정보수집능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보여지며(Blustein, 1985), 이는 미래에 대해 계획할 수 있는 긍정적인 미래관과 연결되어 진로계획을 돕는다고 볼 수 있다(김은영, 2010). 실제로 전문대학생들은 취업정보의 양이 불충분하여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장석민, 2000). 따라서 전문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더욱 더 지지를 제공해주고, 직업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진로결정에 많은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 보여지며, 현장체험은 전공과 연관되는 기업체에서 실제 직장생활을 미리체험해 보고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를 연결 지어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진로결정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4. 대상자의 진로결정 수준

대상자의 진로결정 수준을 살펴본 결과 체험 전 전체 평균 3.41(±.55)에서 체험 후 평균 3.51(±.5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며($t=-5.89, p=.000$), 하부 영역을 살펴보면 진로확신은 체험 전 평균 3.44(±.77)에서 체험 후 3.65(±.8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나($t=-7.57, p=.000$), 진로미결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69, p=.000$) <Table 4>.

<Table 4> Career decision scale

N=941

Variable	Classification	Mean	SD	Mean Diff (Post-Pre)	t	p
Certainty	Pre-test	3.44	.77	.21	-7.57	.000
	Post-test	3.65	.86			
Indecision	Pre-test	3.38	.52	-.01	.69	.489
	Post-test	3.37	.49			
Total	Pre-test	3.41	.55	.10	-5.89	.000
	Post-test	3.51	.56			

진로결정 수준은 산업체 현장체험프로그램 실시 후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이는 현장실습이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Nelson, 1990; 윤치환, 박영기, 2005; 조현재, 2010). 진로결정에 있어서 진로경험과 진로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현장체험이 직업에 대한 능력, 관심, 가치를 파악하도록 돕고 직업적 자아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Taylor, 1988). 현장체험 학습에서 경험하는 생생한 체험은 대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주며, 전공 관련 현장체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이나 소질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기회와 현명한 진로선택에 도움을 제공하여 진로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 진로결정을 향상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진로결정의 하부 영역을 살펴보면 진로확신수준은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나 진로미결정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Crites(1981)는 진로미결정의 원인으로 진로결정에 대한 학습부족, 진로결정에 대한 체험 부족 등을 중요한 요인이라 하였으며, 이지영(2004)은 성, 학업성적, 학년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진로미결정의 중요한 변이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1학년 신입생으로 자신의 적성, 흥미 및 전공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진로미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며, 본 프로그램이 1일 현장체험학습으로 산업체나 직업현장 견학 수준으로 직업에 대한 정보수집에는 효과적이었으나, 전공직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는 다소 부족함이 많았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상당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 및 장래 희망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하기보다는 수능성적에 맞추어 대학에 입학하여 진로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진로미결정 상태로 대학신입생시절을 보내며, 전공분야 진로에 대한 충분한 정보부족과 신입건으로 중도자퇴, 전과, 타과편입 그리고 젊은 직장인들의 이직 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하여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불러온다(박복남, 박종선, 이정란, 2009, 조현재, 2010). 전공 관련 직업체험은 전공대학생들의 현명한 진로선

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며,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조아미, 2001). 본 연구는 이러한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결정 향상에 기여하여 진로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전공직장체험의 기간연장과 직장체험관련 교과목 포함한 보다 실제적인 교과과정 운영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한 재학생들의 적극적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산업체현장체험프로그램의 만족도

학과별 산업체현장체험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치기공과가 평균 4.44(±.6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간호과 4.17(±.58), 임상병리과 4.01(±.54)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건행정과(M=3.83, ±.63)와 관광계열(M=3.83, ±.63)이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치기공과는 간호과를 제외한 다른 6개학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과는 치위생과, 보건행정학과, 관광계열, 의약복지정보계열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0.75, p=.000)<Table 5>.

<Table 5> Satisfaction of industry's field experience program by major department N=941

Department(Major)	mean	SD	Min	Max	F(p)	Scheffe
nursing ¹	4.17	.58	1.22	5.00	10.75 (.000)	3,5,7,8<1
clinical pathology ²	4.01	.54	2.44	5.00		2<4
dental hygiene ³	3.91	.49	2.22	5.00		3<1,4
dental Tech ⁴	4.44	.63	1.56	5.00		2,3,5,6,7,8<4
health administration ⁵	3.83	.63	1.89	5.00		<1,4
hair & beauty ⁶	3.93	.46	2.89	5.00		<4
tourism ⁷	3.83	.63	1.89	5.00		<1,4
medical informatics ⁸	3.89	.67	2.00	5.00		<1,4
Total	4.02	.61	1.22	5.00		

학과별 산업체현장체험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치기공과가 평균 4.4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행정과와 관광계열(M=3.83, ±.63)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모든 학과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공 관련 직장체험을 실시한 대학생은 진로선택과 진로성숙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며, 전공 관련 직업에 대한 필요한 기술을 자세히 알고 직업세계의 실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Nelson, 1990). 또한,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적 지식을 현장체험을 통한 실제적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전공 분야의 미래직업에 대한 탐색능력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향상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산업체현장체험 프로그램 만족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산업체현장체험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4.16(±.73)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관의 환경과 교육자와 직원에 대한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험 프로그램의 체계성과 양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6> Satisfaction of industry's field experience program Item N=941

Item	Min	max	Mean	SD
Exciting and rewarding of industry's field experience program	1.00	5.00	4.06	.74
Satisfaction for the amount of education of industry's field experience program	1.00	5.00	3.82	.81
Satisfaction about the quality of education of industry's field experience program	1.00	5.00	3.95	.78
Satisfaction with educational institutions of industry's field experience program	1.00	5.00	4.16	.73
Satisfaction with education staff and educators by industry's field experience program	1.00	5.00	4.07	.75
Satisfaction with education environment by industry's field experience program	1.00	5.00	4.14	.77
Satisfaction for employee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by industry's field experience program	1.00	5.00	4.07	.76
Satisfaction of the educational system on by industry's field experience program	1.00	5.00	3.81	.85
With respect to the future of the profession was to help my development. by industry's field experience program	1.00	5.00	4.06	.82
Total Satisfaction	1.22	5.00	4.02	.61

만족도 조사결과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 보다 방문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학과에서 선정된 기관이 대기업으로 재학생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으로 우수한 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나온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방문기관에 대한 만족도보다 낮은 이유는 대상자가 모두 1학년 신입생으로 전공에 대한 학습기회 부족으로 학문적 이해가 아직은 낮은 상태로 전공지식에 대한 경험보다 대형기관에 대한 외면적 만족이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대학신입생의 진로지도는 대학시절 전체를 좌우하게 되므로 대학입학시기부터 직업을 찾고 전공 관련 직업에 따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박복남, 박종선, 이정란, 2009).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신입생의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결정 수준 향상에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으나 기존의 현장체험교육프로그램을 신입생 수준에서 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 교육내용과 과정을 개선 및 보완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산업체현장체험프로그램을 적용한 대학신입생의 학교만족, 전공만족, 진로결정효능감,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와 산업체 현장체험의 만족도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일 도시 A전문 대학에 재학 중인 1학년 신입생 총 941명으로, 2009년 7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현장견학 실시 전 후 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program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백분율, paired t-test, One way-ANOVA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여학생 694명(73.7%), 남학생 247명(26.3%), 총 941명으로, 간호과 315명(33.5%), 임상병리과 88명(9.4%), 치위생과 139명(14.8%), 치기공과 52명(5.5%), 보건행정과 74명(7.9%), 피부미용과 64명(6.8%), 관광계열 88명(9.4%), 의약복지정보계열 121명(12.9%)이었다. 체험 지역은 서울을 포함한 6개 지역이었다.

2. 학교만족도는 평균 3.60(±.74)에서 체험 후 평균3.84(±.7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t=-10.86$, $p=.000$), 전공만족도는 체험 전 평균 3.92(±.74)에서 체험 후 4.09(±.7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7.99$, $p=.000$)<Table 2>.

3. 대상자의 진로결정효능감 정도는 체험 전 평균 3.46(±.39)에서 체험 후 3.56(±.4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t=-7.48$, $p=.000$). 하부영역은 정보수집($t=-8.10$, $p=.000$), 목표설정($t=-4.71$, $p=.000$), 진로계획($t=-7.15$, $p=.000$), 문제해결($t=-2.57$, $p=.010$), 자기평가($t=-6.65$, $p=.000$) 5개 영역 모두 체험 전에 비해 체험 후에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4. 대상자의 진로결정 수준은 체험 전 전체 평균 3.41(±.55)에서 체험 후 평균 3.51(±.5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며($t=-5.89$, $p=.000$), 하부 영역은 진로확신은 체험 전 평균 3.44(±.77)에서 체험 후 3.65(±.8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나($t=-7.57$, $p=.000$),진로미결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69$, $p=.000$).

5. 학과별 산업체현장체험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치기공과가 평균 4.44(±.6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간호과 4.17(±.58), 임상병리과 4.01(±.54)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건행정과($M=3.83$, $\pm.63$)와 관광계열($M=3.83$, $\pm.63$)이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체현장체험 프로그램 만족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산업체현장체험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4.16(±.73)으로 가장 높았으며, 체험 프로그램의 체계성과 양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산업체 현장견학프로그램은 진로에 대한 확신부족으로 불안감이 높은 전문대학신입생에게 전공 분야에 대한 정보제공과 진로탐색능력을 확대시켜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결정 수준 향상과 더불어 학교와 전공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본 연구의 현장체험프로그램은 1일 체험으로 전공분야에 대한 이해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기간을 연장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 연구의 대상을 전공별로 분류하여 신입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을 조사하고 향후 전공별 특성을 살린 산업체현장견학프로그램을 개발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 본 연구의 대상이 지방의 1개 전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표집과 관련하여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 타 지역과 대학을 연구 대상으로 확대하여 반복 검증 해볼 필요성이 있다.

V. 참고 문헌

- 오치선 외, 2000, *청소년지도방법론*, 서울; 학지사.
- 이숙영, 2007,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립, 김봉환, 김병숙, 최용용, 2003, *현대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강승희, 2010, 공학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29(3), 291-307.
- Omdoff, R. M., & Herr, E. L.(1996). A comparative study of declared and undeclared college students on carrer deopment activiti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4(6). 632-639.
- 김영경, 2008, 대학 신입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191-1210.
- 이은진, 2002,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621-636.
- 차선미, 2005, *대학생의 직장체험여부와 만족도에 따른 직업기초능력과 진로탐색능력의 차이*,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희정, 2004, *전문대학생의 자아분화 정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및 진로준비행동*.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성용, 2007, *대학생의 정사지능, 자기주도학습준비도와 진로결정수준간의 상관 및 효과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아미, 2001, 청소년(지도) 전공 대학생의 전공관련 직업체험이 진로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2(1). 29-46.
- 한봉기, 2008,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문대학 현장중심 교육의 운영 방향 연구-직무 분석을 중심으로-, *디지털디자인학연구*, 8, 117-128.
- 김유리, 이계경, 2008, 직업체험 몰입(Flow)경험과 진로결정효능감과의 관계 -Job School 직업체험 실습수업에서의 몰입경험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6(2). 75-90.
- Betz, N. E., & Luzzo, D. A. (1996). Career assessment and th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413-428.
- Taylor, M. S.(1988). *Effects of college internships on individual paricipan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3(3). 393-401.
- 이학주, 이기학, 20002,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 - 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 장기명, 2003, *대학생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및 과정분석*,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Osipow, S.H. (1980). *Career Decision Scale manual (2nd ed.)*. Columbus, OH: Marathon Consulting and Press.
- 고향자, 2003, 대학생의 의사결장유형 및 진로탐색효능감과 진로미결정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19(1), 109-124.
- Campbell, 1979,
- 조현재, 2010, 현장실습참여유무와 유형이 대학생의 진로개발준비도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연구*. 17(7). 47-76.
- Blustein, D. L.(1985). The role of goal instability and career self-efficacy in the career exploration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김은영, 2010, 전문대학생의 진로결정관계성,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3(1). 79-96.

장석민(2000). 제2차년도('00) 진로정보 센터 운영사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윤치환, 박영기, 2005, 관광관련학과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진로결정과의 관계, *관광연구저널*, 19(3). 291-302.

Nelson, K. K. (1990). *How relevant career experiences influence career decision mak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Texas, Austin.

Crites, J. O.(1981). *Career counseling: Models, methods, and materials*. New York: McGraw-Hill.

이지영, 2004, 진로미결정의 선행변인과 결과변인으로서의 직업탐색행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복남, 박종선, 이정란, 2009, 일 지역 3년제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보건장 보통계학회*, 34(2). 153-164.